

살아 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

비현실적 감동의 인생담론

‘완벽하게’ 내지 ‘성급하게’ 연출된 베스트셀러

글 | 장세진



《살아 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
 탄취임 지음 | 김명은 옮김 | 위즈덤하우스 |
 216쪽 | 값 8,800원

‘독자들의 감동에 힘입어 연속 8주 전국종합 베스트셀러 1위’ 4월 6일자 한국일보에서 본 책 광고의 메인카피 중 하나이다. 《살아 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에 대한 광고인데, 그 외에도 이런저런 ‘사실’이 이어지고 있다. 예컨대 도종환 시인의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감동”이라든가 ‘가장 선물 받고 싶은 책 1위’ 따위가 그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 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이하 《살아 있는...》)에 대한 광고를 눈여겨 본 것은 원고청탁을 받고 나서였다. 공교롭게도 원고청탁을 받은 그날 출판사의 전면광고를 통해서 《살아 있는...》의 베스트셀러로서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나의 게으름이거나 소위 ‘베스트셀러 무시하기’ 성향 때문이기 쉽다. 이미 8년 전 수십 권의 베스트셀러를 썰어보기도 한 《뒤집어보는 베스트셀러》라는 책을 펴낸 적이 있지만, 여전히 베스트셀러는 내게 게으름이거나 무시하기의 대상이곤 했다.

아마 어떤 책에 대해 짐짓 감동을 받지 않으려고 애써야 하는 평론가라 그러는 것인지도 모를 일이지만, 여하튼 베스트셀러라는 어떤 분위기에 휩쓸려 금방 그 책을 사서 읽는 일은 좀처럼 없는 게 나의 독서법이다. 《뒤집어보는 베스트셀러》도 오랜 시간에 걸쳐 읽은 독후감들을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한 것일 뿐이다.

베스트셀러에 대한 나의 불신은 뿌리가 꽤 깊다. 《태백산맥》이나 《토지》처럼 비극적 역사에 대한 장중한 무게감을 자연스럽게 가슴깊이 전달하는 대하소설이라면 혹 모를까! 어디 그뿐이라. 《장길산》《객주》《아리랑》《한강》 등 진정한 의미에서의 바람직한 베스트셀러들도 얼마든지 있다.

베스트셀러에 대한 나의 불신은 그것들이 ‘연출’ 된다는 점과도 무관치 않다. 요컨대 그저 그런 책일 뿐인데, 출판사의 교묘한 ‘기획력’ (그러니까 상술이다)으로 ‘뜨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사람을 동원한 자사 책사들이기 등 오죽했으면 일간신문에서의 베스트셀러 집계발표가 사라져버렸을까!

아니나 다를까 동아일보(05. 4. 13)는 《다빈치 코드》를 밀어내고 9주 연속 판매 1위를 차지한 《살아 있는...》이 짜깁기 책자임을 보도하고 있다. 3분의 2는 지은이가 직접 집필했지만, 나머지 15편은 ‘리더스 다이제스트’ 한국판 등에 실린 글들을 출처 표기 없이 재수록했다는 내용이다.

이는 지은이가 아니라 출판사의 잘못으로 밝혀졌다. 국내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작가 탄취잉의 중국판 책에 표기된 '편저자'를 '저자'로 둔갑시켜버렸으니까. 줄지에 추천사를 쓴 도중환 시인이나 수많은 독자들은 출판사의 상술에 '놀아난' 셈이 되고 말았다. 출판사 측은 추후 인쇄본부터 '편저자'로 바로잡겠다고 밝혔지만, 글씨 팽배해진 독자들의 불신이 금세 가라앉을지 의문이다.

연출은 책의 부피나 편집에서도 감지된다. 책은 4·6판 214쪽이지만, 중간 중간 끼어 넣은 삽화 및 본문 발췌 부분들을 빼면 채 200쪽이 안될 것 같다. 그러니까 시집도 아닌 에세이집으로서는 분량 미달인 것이다. 아마 직접 쓰지 않은 15편의 글들을 굳이 집어넣은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한다. 이를테면 《살아 있는...》은 '완벽하게' 내지 '성급하게' 연출된 베스트셀러인 셈이다.

물론 베스트셀러에는 어떤 필연적인 요소가 밀받침되기 마련이다. 과거 IMF의 환위기가 터졌을 때의 《아버지》가 그랬고, 북한의 '서울 불바다' 뉴스와 맞물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도 그랬다. 예컨대 사회적 분위기와 맞아 떨어지는 타이밍이 그것이다. 아마도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 및 교과서 역사왜곡 등이 국민적 공분(公憤)을 불러일으키는 요즘 같으면 독도관련 책은 베스트셀러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렇더라도 나의 베스트셀러에 대한 불신은 막상 그 책을 읽었을 때 받는 실망감 때문에 생겨난 것이기도 하다. 보는 이에 따라 느낌의 깊이나 감동의 무게가 다를 수 있지만, 그리고 그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다양성 분출로 자연스럽게 인식되어야겠지만, 나로서는 바쁜 시간을 쪼개서 왜 그 책을 읽었지 하는 '본전' 생각이 난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유감스럽지만, 《살아 있는...》에 대해서도 그런 느낌은 유효하다. 평론가이면서도 나는 이 책의 여러 쪽지를 두 번씩 읽었다. 감동이 끊어 넘쳐서가 아니라 무슨 내용인지 얼른 이해되지 않아서다. 정독을 하려 해도 어느덧 잡념이 스며들어서인데, 그만큼 흡인력이 부족하다면 나만의 억측일까? 대개는 구체적 상황의 묘사 대신 서술적 이야기의 간접화법이 그 주범이다.

《살아 있는...》이 살아 있는 동안 꼭 해야 할 각기 다른 이야기라는 인상을 풍기지만, 막상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 예컨대 '소중한 친구 만들기' '고향 찾아가기' '동창 모임 만들기' 등은 우정이라는 공통적 주제를 담고 있다. 꼼꼼하게 읽는 독자를 어리둥절하게 할 뿐 아니라 앞에서 말한 '연출'의 혐의를 내용면에서도 피할 수 없게 된 셈이다.

무엇보다도 결정적으로 《살아 있는...》이 불만스러운 것은 치열하게 살아가야 할 현실적 삶을 호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령 '지금, 가장 행복하다고 외쳐보기'는 세치 혀만 잘 놀려도 영업담당이사로 승진할 수 있다는 인상을 풍긴다. 또 '자신을 소중히 여기기'는 그것이 인생에서 중요한 자세이긴 하지만, 돌에 대한 사례가 허황되거나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그렇듯 일상적 현실과 거리가 먼 이야기이기에 비현실적 감동의 인생담론이다. 뭔가 그럴 듯하고 어떤 고단함을 털어내는 성실지만, 책 읽기를 마치고 일상의 현실로 돌아온 독자들로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다. '사랑에 송두리째 걸어보기'의 '그'처럼 할 수는 없기에, '부모님 발 닦아드리기'의 청년처럼 취직을 하기 위한 인위적 효도는 오히려 부모들의 대가를 바라지 않는 무조건적 자식 사랑이라는 본질에 대한 배신일 수도 있겠기에.

글을 마무리하려니 엉뚱하게도 인간은 나약한 존재라는 생각이 난다. 또한 대중은 우중(愚衆)이라는 말도 떠오른다. 앞에서 말한 '연출'과 별도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 있는...》에 감동을 받고 눈물까지 흘렸더니, 도대체 대중의 마음은 알다가도 모를 깊은 바닷속이다. 그럴망정 분명한 사실이 있다. 그런 감동이나 눈물 흘리기는 독자 개인 각자의 자유라는 점이다. 田

이 글을 쓴 장세진은

1955년생으로 원광대 국문과와 서남대 대학원 국문과를 졸업했다. 1983년 서울신문사 방송평론 공모에 당선, 지금까지 27권의 평론집과 수필집 등을 펴냈고 1998 전국 예술상, 2001 신곡문학상, 2002 전주시예술상, 2003 공무원문예대전(저술부분) 등을 수상했다. 문학·방송·영화평론가이며 현재 전주공업고등학교 교사다.

